



Zip Antique Ludo necklace transformable into a bracelet, rubies and diamonds.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신세계 본점 - 강남점 - 센텀시티 - 대구점
갤러리아 EAST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
www.vancleefarpels.com - 00798-852-16123

Style

조선일보

NOVEMBER 2018
vol. 181



FENDI.COM



FENDI



BLACK TIE OR DEEP BLUE

The Seamaster Diver 300M will take you from the bottom of the sea, to the centre of attention and to the top of the world.



SEAMASTER DIVER 300M
MASTER CHRONOMETER


OMEGA

창담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 신세계 본점 02 310 1270
신세계 영동포점 02 2639 1910 • 현대 목동점 02 2163 1263 • 현대 판교점 031 5170 1111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신세계 대구점 053 661 1811



BVLGARI
ROMA

B.zero1

STYLE CHOICE BVLGARI.COM



26



30



FENDI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칼 라카벳이 촬영한 펜디의 2018~19 F/W 여성 광고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모델 애드와 아보아(Adwoa Aboah), 애비 리(Abbey Lee), 지지 하디드(Gigi Hadid), 벨라 하디드(Bella Hadid)가 펜디 여성의 강인하고 대담한 인격과 자유로운 정신을 보여주는 강렬한 표지를 취했다. 문의 02-2066-9023



20



12

- 14 **일장월취(日將月就) 미식 풍경, 식탁의 행복을 곁잡게 하다** 얼마 전 스페인의 기대수명이 2040년이면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됐다. 미국 보건계량평가연구소(HME)가 영국 의학 학술지 <랜셋>에 게재한 내용인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이 85.8세로 '장수 국가'로 유명한 일본(85.7세)을 제치고 최장수국의 자리를 넘볼 것으로 전망됐다(한국의 경우는 83.5세). 영국 더 타임스를 비롯한 언론 매체에서는 '그들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데 왜 그렇게 장수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여기에는 올리브 오일, 견과류 같은 지중해식 식습관이 큰 몫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게다가 여러 번 나눠 즐기면서 먹는 식문화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요즘 '럭셔리 고메(luxury gourmet)'가 인기를 얻으면서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미식 풍경을 보면서 라이프스타일의 중요한 부분이자 총체적 서비스 경험으로서의 식문화를 생각해볼까 한다.
- 16 **ETERNAL ELEGANCE** 여성미와 우아함, 럭셔리인의 기쁨을 모두 담은 마더오브릴 여성 워치 컬렉션.
- 18 **2018 F/W COAT REPORT** 그야말로 코트 전성시대다. 클래식한 코트부터 스테이트먼트 코트까지, 해링본부터 사이링까지, 울기울을 책임질 코트 트렌드 컬렉션.
- 20 **THE WAY WE WEAR** 트레이디셔널하면서도 시크하고, 친숙한 듯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이번 시즌 버버리(Burberry)의 베스트 룩 플레이.
- 26 **HIGH PROFILE** 하이패션의 진수를 경험하고 싶다면 오뜨 꾸뛰르(Haute Couture)의 세계에 입문하는 것은 필수다. 장인의 손끝에서 피어난 이 아름다운 작품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경을 선사한다. 지난 9월 홍콩 리츠 칼튼 호텔에서 개최된 사넬 2018~19 F/W 오뜨 꾸뛰르 컬렉션 프레젠테이션 현장.
- 28 **ROMAN RHAPSODY IN ARLES** 매번 선보이는 컬렉션마다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구찌의 2019 크루즈 쇼, 자유분방한 한편의 광시곡을 감성하는 듯한 2019 크루즈 쇼 역시 구찌다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강렬하고도 특별한 이벤트였다.
- 30 **UNEXPECTED NEW LOOKS** 2019 루이 비통 크루즈 컬렉션은 신선함과 기발함으로 가득했다. 의상은 언밸런스하면서도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고, 액세서리들은 재치와 유행을 줄거움을 주었다. 장사는? 이티스탁하고 간결한 고급스러움으로 돌아선 모든 이를 매료시킨 생폴 드방스의 마그 재단 미술관이었다. 역시 루이 비통이다.
- 32 **REFINED LUXE** 뛰어난 기술과 정교한 아름다움,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유니크한 가치를 지닌 리처드 밀의 새로운 워치 컬렉션 RM 67-01 오토매틱 울트라 플랫파 이블 착용한 2명의 여성 영배서다.
- 33 **GREATEST TOUCH** 2002년 마다가스카르의 바닐라 플라넬리아와 함께 시작된 사넬 뷰티의 장수, 수블라미자의 여정은 올해, 궁극의 에센스로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뤘다. 식물계의 보석, 솔리다고를 담은 수블라미자 레썬스 폼다멘탈이 안티에이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 34 **EDITOR'S PICK** 신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가을에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선택한 뷰티 아이템.

Style 조선일보 Issue.181 November 2018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어시스턴트 | 김은서 이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민 광고·마케팅 | 박경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메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셋째 주 수요일에 각각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RICHARD MILLE



CALIBER RM 037

RICHARD MILLE BOUTIQUE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29 • 02) 512 1311

www.richardmille.com

© Didier Gourdon

포토그래피 박민주



Jewel BE BRILLIANT

반짝이고 클린한 풀 파베 다이아몬드 컬렉션.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자스트 앵글루 링 1천7백만원대 **카르파에**,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 2천만원대 **블라티**, 강렬한 존재감을 선사하는 자스트 앵글루 더블 브레이슬릿 가락이팅 **카르파에**, 다이아몬드를 수놓은 T 칼렉션 밴글 가락이팅 **타피타**, 진주를 일렬로 늘어놓은 벨런스 파베 링 1천7백만원대 **타사키**, 에디터 **베이션**

Fashion K-스타, 글로벌 브랜드와 만나

흔히 글로벌 브랜드가 협업 아이템을 출시한다고 하면 대중적인 브랜드와 아이돌 그룹의 조합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명품 마켓에서 한국인의 파워가 막강해짐에 따라 럭셔리 마켓의 핵심인 워치와 레더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스위스 럭셔리 시계 브랜드 IWC 샤프하우젠과 대한민국 아이돌의 삶이 있는 전설 이승엽이 만나 탄생시킨 IWC 포르토피노 크로노그래프 '이승엽 스페셜 에디션'을 예로 들 수 있다. IWC는 56개 한정수량 중 27개를 11월 공식 출시하기에 앞서 국내 대표 경제 행사인 케이옥션 10월 자선+프리미엄 온라인 경매를 통해 먼저 선보였다. 첫 번째 한정판 워치인 1번과 이승엽 산수의 영원한 등번호인 36번을 새긴 시계는 오리지널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최종 낙찰되었다. IWC 포르토피노 크로노그래프 '이승엽 에디션' 판매 수익금은 이승엽이 구장화재전에 기부해 스포츠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열정과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행보에 사용되기에 더욱 주목된다. 몽블랑과 박서준이 함께 선보이는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도 눈길을 끈다. 몽블랑 코리아 모델 박서준이 가장 좋아한다고 밝힌 도트 패턴은 경쾌함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도트의 컬러나 크기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 말미잘 세대가 선호하는 패턴 중 하나다.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은 몽블랑 베스트셀러 아이템인 백백과 벨트, 지갑 등 여섯 가지 레더 제품으로 구성되었다. 11월 2일 롯데백화점과 몽블랑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선판매를 예정이며, 23일부터 전국 백화점 몽블랑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에디터 **이재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별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Drink 영혼의 찬기를 보듬다, 세련되고 우아한 스피릿(spirits)의 세계

찬 기운이 스며드는 겨울이 다가오면 주류 시장에서는 위스키나 보드카, 진 등 도수가 만만치 않지만 매력적인 증류주의 인기가 높아진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술 애호가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매력적인 제품을 소개한다. 최근 페르노리카 코리아에서 국내에 정식으로 선보인 싱글몰트 위스키 '아벨라워(Aberlour)'는 이미 위스키 라비 시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브랜드. 스코틀랜드 스페이스사이드의 증류소 15마일 이남에서 생산한 보리만 사용하며, 스페인 셰리 캐스크와 아메리칸 버번 캐스크 각각에서 최소 12년 이상 저장한 원액이 복합적인 맛을 내는 '더블 캐스크' 제품으로 유명하다. 아벨라워 12년 더블 캐스크 11만9천원, 아벨라워 16년 더블 캐스크 24만원, 물을 섞지 않은 '캐스크 스트렙스' 제품으로 열혈 팬을 가느라 아벨라워 아부나호는 21만원(각 700ml, 전곡 와인잔모어 판매가 기준). 빈티지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모렌지 그랑 빈티지 몰트 1989'도 눈길을 끈다. 수상 경력이 화려한 글렌모렌지의 빈티지 컬렉션 '본드 하우스(Bond House No. 1)'의 두 번째 한정판 위스키로, 브랜드 최초로 코트 로티(Côte-Rôtie) 와인을 담았던 몇 안 되는 최상급 캐스크에서 부분 숙성을 거쳤다고, 부드러운 질감, 잘 익은 붉은색 과일과 은은한 풍미를 자랑한다. 주요 호텔 바와 위스키 바에서 판매한다. 럭셔리 스킨케어 위스키의 자존심을 뽐내는 로얄 샬루트와 손잡고 왕실 가문무도회는 소재를 예술적으로 풀어낸 '로얄 샬루트 21년 가문무도회 기프트 패키지'를 선보인다. 가격은 25만원(700ml는 25만원, 500ml는 18만원(백화점 기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대표하는 진 브랜드 담락(DAMRAK)도 주목할 만하다. 오리지널 진의 재료인 주니퍼와 상큼한 시트러스류가 어우러진 맛 덕분에 젊은 층과 여성 등에게서도 널리 사랑받는다. 에디터 **고성현**



Beauty SMART CLEANSING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지는 건조한 가을바람이 피부에 남긴 건, 해결제 일어난 각질과 울긋불긋한 피부 톤이다. 피부가 예민해진 시기인 만큼 스킨케어 제품을 바꾸기보다 내 피부에 맞는 고품질 스마트한 클렌징으로 트러블을 바로잡을 것.

(맨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리프터리 풀 클렌저**는 러시아 코즈메틱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프리미엄 클렌저인 만큼 부드러운 거품과 세정력이 돋보인다. 일교에 따라, 용량 추출물, 시카 추출물 등을 함유해 세안 후 수분 막 형성에 도움을 주어 생와 윤기를 더하고,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을 예방한다(125ml 10만8천원). 보다 뛰어난 클렌징 효과를 얻고 싶다면 평소 사용하던 페이스 클렌저에 **프리쉬 업보리안 클레이 큐리피팅 마스크**를 섞어 사용해보자. 이는 중부 이탈리아의 노제라 지역에서 발견된 귀한 진흙 성분을 담은 클레이 마스크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미세 먼지, 메이크업 등으로 막힐 수 있는 모공을 깨끗하게 세정한다(100ml 7만9천원). 평소 가벼운 메이크업을 선호해 간편한 클렌징을 원한다면 **샤넬 오 두세르 클렌징 워터**를 추천한다. 이는 피부 유연 및 연화 기능을 갖춘 아유 추출물과 항염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추출물 등 귀한 활성 성분을 함유해 피부 노폐물과 메이크업 잔여물을 말끔하게 닦아내고, 스킨케어 제품을 바른 듯 부드럽고 촉촉한 마무리감을 선사한다(150ml 6만1천원). 매끈한 피부를 위한 지름길은 제스탈 **키엘 레아스 모공 클렌저**는 피부 정화 및 독소 배출 효과까지 뛰어난 이마존 지역의 화이트 클레이를 함유해 남아진 모공의 원인을 중 하나인 과잉 피지와 각질을 지우지 않고 깨끗하게 클렌징해주어 맑은 피부로 가꿔준다(150ml 3만1천원). 워터부르프를 포함한 모든 종류 아이 & 림 메이크업을 말끔하게 지워주는 메이크업 리무버 **왕물 비비샵**은 수성종과 유성종, 두 가지 클렌징 성분으로 이루어져 워터 타입 클렌저보다 빠르게 부드럽게 메이크업을 지울 수 있다. 천연 성분을 다량 함유한 자카르 클렌저로 눈이 민감한 사람이나 렌즈 착용자에게도 적합한 피부 친화적인 제품이다(125ml 4만원). 허브의 생력학을 담아 피부 밸런스를 되찾아주는 피우더 타입 클렌저인 **데코르테 피로토 클레이 피우더 워시**는 풍부한 영양이 담긴 부스트 추출물과 각질을 케어하는 효소를 주성분으로 해, 세안 후 피부가 개운하면서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스페인 비블처를 농밀한 탄산 버블이 모공 구성요소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것이 특징이다(40g 3만6천원). 세안 후에도 피부가 메이크업이 없게 촉촉함을 선사하는 **시슬리 워터-블링 라이프팅 포인 클렌저**는 시슬리의 대표 화이트닝 라인인 워터-블링에 선보이는 클렌저로, 워터-블링 모든 제품에 함유된 화이트닝 유성 성분을 함유한 이 푸른색 사용하면 피부를 맑게 가릴 수 있다(100ml 14만원). 피부에 붙은 초미세 먼지까지 제거하는 클렌징 다퍼스, **클라리 스킨케어 프리미엄 업 리프트**는 손으로 세안해도 따듯하게 깨끗하게 클렌징해 워터부르프 메이크업과 자외선 차단제까지 제거한다. 화이트 헤드의 촉촉 여드름이 고민이라면 미디비스를 사용해 노폐물과 막힌 모공을 케어해줄 것(38만원). 에디터 **권유진**



크 헤르초크(Jaques Herzog)와 피에르 드 메uron(Pierre de Meuron)이 최근 기성품 건축을 위해 한국을 찾으면서 심탄 & 송은문화재단의 신사옥 조감도가 처음 공개됐다.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지닌 랜드마크를 의도했다는 송은 신사옥은 지상 11층(지하 5층) 규모로 '송'자라는 뜻의 송은(松雲)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스카우트 문 결을 안면 콘크리트 외벽에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독특한 삼각형 형태 등의 요소들이 절로 시선을 잡아주는 건물이자, 인구 코어에 대형 글라스를 설치해 특별한 행사가 열리면 비 공간이 정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등 나름의 방식으로 개성을 풀어냈다. 도산대로 인근에 좋은 건축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솔직히 말하면서 '시적 감성을 높였다'는 송은 신사옥의 차별화된 형태와 분위기를 강조한 이유 있는 '이는 (건축적) 재밌어서 비롯된 형태이기'에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발견한 것이다'라는 인상적인 발언을 남겼다. 에디터 **고성현**

Focus 서울을 수놓을 건축 거장의 새로운 랜드마크, 심탄 & 송은문화재단 신사옥

건축가 이름만으로도 기대를 품게 하는 문화 예술 공간이 3년 뒤 서울 청담동 한복판에 들어선다. 런던의 타이트 모던 미술관, 베이징 올림픽 주 경기장, 도쿄의 아오야미 플라자 빌딩, 홍콩 타이완(Tai Woon) 아트 센터 등 우수 도시의 상징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맡은 헤어초크 앤드 드 메uron(Ho) 건축설계사무소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 한국에서 선보인 HoM의 첫 작품이 2021년에 모습을 드러낼 심탄 & 송은문화재단의 신사옥이다.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이다. HoM을 이끄는 스위스 출신의 건축가 듀오로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이기도 한 자



Louis Vuitton Blossom Collection

LOUIS VUITTON

louisvuitton.com



오렌지 컬러 선글라스
20만 원대 레이먼 by
룩스타기 코리아.

록이 멋스러운 감성을 붙여넣을
캐시미어 실크 머플러 82만 원 브리오나.

9077주 소재의 코어! 컬러 변을 영감받은
폴리ester 소재의 벨트 110만 원 스텔라
폴리ester 소재의 벨트 110만 원 스텔라

폴리ester 소재의 벨트 110만 원 스텔라
41만 원대
보타가 배너.

다양한 스타일에 매치할 수 있는 스웨이드 재킷 가격 미정 빌리.

스타일로 코어트를 준
하이힐 스키부츠 7백만 원
크리스찬 루부탱.

유니클 컬러 대시가 눈에
띄는 스웨이드 삭스 스키부츠
1백만 원 빌리.

보타가 배너 13만 원 폴드.

샤링톤의 유원형
아이스크림 이색형, 검은색
에디터 아티스트

가죽 코임 디테일이 특장인
타입워커 브레이크아웃
39만 원 몽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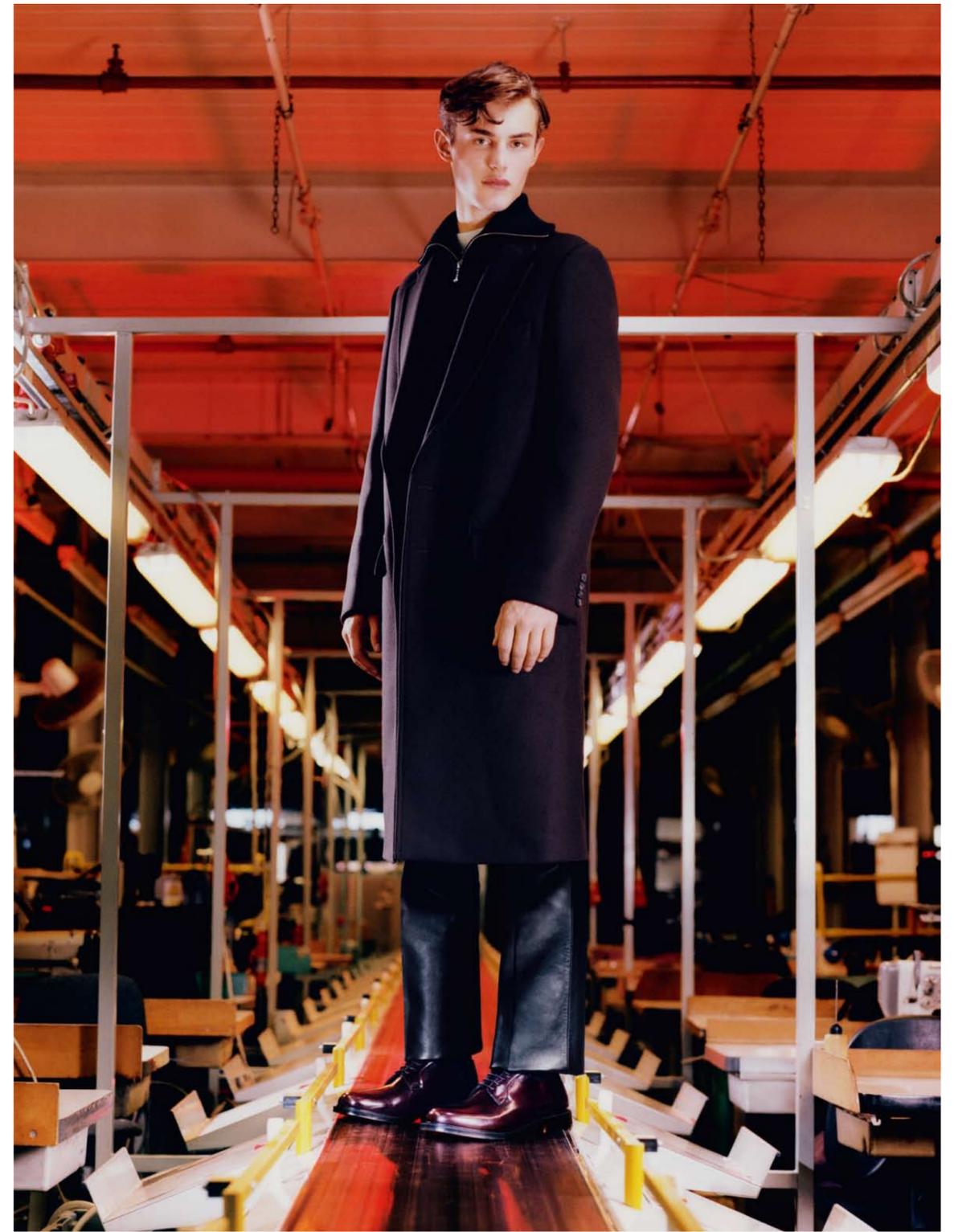
귀여운 일러스트가
그려진 양면 지갑
60만 원대 모이나.

- MLB 02-520-0905
- 펜디 02-2056-9023
- 디올 02-3480-0104
- 본다삼 02-2056-1234
- 프라다 02-3218-5331
- 몽블랑 1670-4810
- 폴 포드 02-6905-3534
- 모이나 02-2254-4150
- 브리오나 02-3274-6483
- 룩스타기 코리아 02-501-4436
- 버버리 080-700-8800
- 보타가 배너 02-3438-7682
- 빌리 02-3467-8935
-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 클로보 비아 엘라스피가 02-2230-1225

스포츠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나일론 로고 패딩 2백만 원대 프라다.

컬러 블록 디테일의 구조적인 백팩. 34X46cm, 1백79만 원 버버리.

Northampton, Church's Factory, June 2018



church-footwear.com

Church's
English shoes



송아지 가죽 소재의 재킷
가격 미정 토즈.

강렬한 레드 컬러와 고급스러운 소재가 돋보이는 클러처.
26.5X18cm, 가격 미정 발리.

아이코닉인 로고 디자인이
표현된 2017년 가장 인기 있는 액세서리.

스WAROVSKI의 유한한
아이스틴의 아름다움. 김민서, 예타리 아저씨.

옐로우 톤의 보잉
선글라스 2만5천원
베디베로.

구름 조각 세이브의
미니백. 17X17cm,
1천만원에 예스24.

벨벳 미들 힐 펌프스
1백15만원 구찌.

특별한 기프트로 추천하는 핑크 컬러 노트
7만6천원 몽블랑.

for her Selection

상쾌하고 리드미컬한 레인보 컬러 팔레트의 매력.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레인보 컬러 카시미어 니시 64만원 바버리.

원더풀 스타일 8천원
2만2천원 몽블랑.

FF-콜고 디자인이 눈에 띄는
아이템! 1백15만원 구찌.

아름다운 룩을
연출해줄 에-엘
펌프스 90만원에
크리스찬 루부탱.

레인보 컬러의
인크 테슬라 69만원
인아 핸드매저.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완성해주는 캐주얼 세팅백.
25X15cm, 2만7천원 몽미 비봉.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토즈 02-3438-6008
골든구스 디렉트 브랜드 02-6905-3693
발리 02-3467-8935
베디베로 1544-0548
구찌 1577-1921
샤넬 02-543-8700
에르메스 02-542-6622
버버리 080-700-8800
미우미우 02-3218-5331
발렌티노 02-2015-4653
펜디 02-2056-9023
몽블랑 1670-4810
인아 핸드매저 02-3479-1529
루이 비통 02-3432-1854
프라다 02-3218-5331

미니 사이즈의 앙증맞은 키링
59만원 프라다.

프린트 장식으로 포인트를
더한 더블 재킷 1백45만원
골든구스 디렉트 브랜드.



PARK SHINHYE



#BrillianceForAll
SHOP THE NEW HOLIDAY

SWAROVSKI.COM

eternal Elegance

여성미와 우아함, 럭셔리 가치를
모두 담은 머더오브펠 여성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메가 드빌 투레지 머더오브펠 다이얼에 골드 케이스, 화이트 레더 밴드까지, 클래식의 전통을 보여주는 여성용 워치 7백만원대, 문의 02-3149-9573 **에거 르클레르 워치** 문 펠크 골드 케이스에 머더오브펠 다이얼, 달의 장엄한 아름다움과 성서와 별자리의 움직임을 표현한 여성용 워치, 부젤이 2백65개에 달하는 에거 르클레르 칼리버 935를 장착하고, 4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가격 미정, 문의 02-6005-3998 **샤넬 프라미에르 워치**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머더오브펠 다이얼을 더해 실용적인 아름다움을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80-200-2700 **반클리프 아펠 빈티지 알함브라 브레이슬릿 워치** 행운의 상징이자 반클리프 아펠의 아이콘인 알함브라 모티프가 연결되어 있는 빈티지 알함브라 브레이슬릿 워치 가격 미정, 문의 00798-852-16123 **몽블랑 보렘 오토메틱 데이트** 6시 방향에 날짜 표시창이 있는 머더오브펠 다이얼이 아름다운 워치,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더욱 우아하다, 6백만원대, 문의 1670-4810 **볼가티 루체아 루보가스** 루체아 컬렉션에 볼가티의 아이코닉한 루보가스 브레이슬릿을 적용한 새로운 디자인, 착용감도 편안하며 아틀리아 스타일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4천3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카르띠에 발롱 볼루 드 카르띠에 워치**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에 일어난 공간의 팽창과 시간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갖춘 워치, 머더오브펠 다이얼이 신비로운 광채를 드러낸다, 무중력 상태를 연상시킴으로써 뛰어난 착용감도 돋보인다, 1천만원대, 문의 1566-7277 **에버리**

**BEYOND
STEREOTYPES**
EIZA GONZALEZ, ACTRESS
#MONCLERBEYOND





2018 F/W Coat Report

그야말로 코트 전성시대다. 클래식한 코트부터 스테이트먼트 코트까지, 헤링본부터 시어링까지. 올가을을 책임질 코트 트렌드 컬렉션.

“One Coat Good, Two Coats Better”

올겨울, 꼭 가져와야 할 코트 트렌드 중 첫 번째는 다양한 디자인의 코트를 활용할 것, 그리고 같이 입을 주목할 것. 스텔라 매카트니부터 버버리, 구찌 등 모든 주요 브랜드에서 올해 역시 롱 코트를 선보였다. 지난 시즌 막스마라 스타일의 코트가 부활하면서 클래식하면서도 길이가 긴 코트들이 더욱 트렌드해지니 보다 과감한 길이의 코트를 선택하는 것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패턴 트렌드는 헤링본이나 글렌 체크 같은 클래식한 패턴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라카르도 티셔가 새롭게 선보인 버버리 체크는 패션계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말 그대로 무한 반복되는 클래식 패턴의 귀환인 것. 로사스 쇼에 등장한 광택 나는 자카드 소재, 패턴 플레이가 강한 디자인은 귀족적인 느낌을 자아내 드레시한 룩을 완성할 수 있다. 컬러 스타일링을 즐기고 싶다면 톤 다운된 핑크와 같은 과감하면서도 모던한 컬러 아이템은 이번 시즌 반드시 갖춰야 할 아이템이다. 그나마 레드 같은 강렬한 컬러에 모노톤을 가볍게 섞어 차분하면서도 칼라풀한 코트는 겨울철 어두운 옷장을 밝혀줄 구세주다. 강렬한 느낌을 주는 스테이트먼트 코트를 원한다면 빈티지 이터나 소재가 대비되는 과감한 디자인을 선택하면 어떨까. 과감한 디자인은 완성하면 디테일이 많은 것이 부담스럽다면 보색을 사용한 디자인을 선택하거나 강렬한 패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너지를 적용한 스타일에 도전하는 것도 좋다. 물론 이러한 스테이트먼트 코트를 선택할 때는 소재와 브랜드, 정교한 실루엣이 뒷받침되어야만 실패할 우려가 없다. 혹은 알렉산더 왕에서 선보인 보머 스타일의 재킷 코트를 골라 유니크한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다. 피의 경우 화려한 모피보다는 사랑스러운 느낌을 간직한 시어링 소재가 자연스러이 어울려 대중성을 띤다. 크림 컬러 혹은 베이지와 같은 데이지 컬러의 밝은 컬러가 대세다. 막스마라, 클로에, 코치, 마이클 코어스, 펜디 등에서 리얼과 페이크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되었다. 케이프 혹은 핀트 스타일의 코트는 실루엣에 민중적이고 패션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실버토레 페라가모와 생 로랑에서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스테디셀러 디자인으로 유려미인 감성을 담은 것은 물론, 보온성까지 뛰어나다. 에디터 **이현진**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One among many models with EQ POWER
 #switchtoEQ

Mercedes-Benz
 The best or nothin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웹사이트
 서울: 강남 (02)513-3000 강남대로 (02)575-7500 강북 (02)6678-7500 강서 목동 (02)6355-0000 동대문 (02)2215-2233 마포 (02)6010-9000 방배 (02)532-3421 삼성 (02)550-4000 서초 (02)550-5000 서초 청계 (02)6007-0100 송파 (02)3434-4000 영등포 (02)6123-1400 용산 (02)709-3800 중랑 (02)2208-0020 청담 (02)6421-1100 한남 (02)6328-7700 경기: 고양 (02)381-9999 구리 (03)1579-0900 부천 (03)2713-4500 분당 서현 (03)1710-8000 분당 정자 (03)1786-6000 수원 (03)1740-5000 스타필드 하남 (03)18072-8900 안성 (03)18094-6000 안양 평촌 (03)1689-8900 용인 수지 (03)15183-9200 일산 (03)1907-7777 의정부 (03)1878-3333 파주 (03)1912-9000 인천: 송도 (03)2770-8800 인천 송도 (03)2770-8800 인천 송도 (03)2770-8800 부산: 감천 (05)1320-6000 금정 (05)1710-2369 남천 (05)1750-2000 부산 북구 (05)1678-7000 해운대 (05)1709-6300 강원: 원주 (033)741-8800 춘천 (033)903-5000 대전: 유성 (042)602-2000 천안 (041)620-7000 광주 (043)299-9000 전북: 군산 (063)454-8000 전주 (063)226-8000 순천 (061)900-8500 광주 (062)226-0001 대구: (053)629-9000 대구 서구 (053)624-2000 포항 (054)256-9001 경남: 마산 (055)296-1004 진주 (055)757-8118 창원 (055)280-8300 울산 (052)701-0503 제주 (064)800-9800
 www.mercedes-benz.co.kr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동7단), 복합휘발유모드 연비 (CS연비): 10.2km/ℓ (도시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1.1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6km/kWh (도시연비: 2.6km/kWh, 고속도로연비: 2.8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7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The Way We Wear

트래디셔널하면서도 시크하고, 친숙한 듯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이번 시즌 버버리(Burberry)의 베스트 룩 플레이,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여자) 브라운 스웨이드 쿼트,
빈티지 체크 숄더브리스 드레스,
실크 소재의 이카이브 로고 롱
스카프, 다-링(D-ring) 디테일의
레더 스틸레토 힐 모두 버버리,
(남자) 스웨이드 코트, 빈티지 체크
셔츠, 울 테일런드 팬츠, 링크
장신의 가죽 로퍼 모두 버버리.

(여성) 캐시미어 소재의 울렉 스웨터,
블랙 로고 버튼 카디건, 타탄체크 칼트
스카프, 스트레이트 핏 데님 팬츠,
스몰 사이즈의 링크 체인 백, 백에 장식한
블랙 배어 참, 실크 스카프, 빈티지 체크
디테일의 레안부츠 모두 버버리,
(남성) 로고 프린트 나일론 후드 재킷,
네이비 캐시미어 코트, 캐시미어 소재의
울렉 스웨터, 타탄체크 칼트 스카프,
데님 팬츠, 하이톱 스니커즈 모두 버버리.





(남자) 하나의 색상의 웨스트맨스터
해링턴 재킷, 스트레이트 핏 데님 팬츠,
블랙 스트라이프 핏 데님 팬츠, 브로그
디테일 레더 부츠 모두 버버리.
(여자) 하나의 색상의 웨스트맨스터
해링턴 재킷, 스트레이트 핏 데님 팬츠,
블랙 스트라이프 핏 데님 팬츠,
리버시블 레더 부츠 모두 버버리.



(남자) 리버시블 핏 데님 재킷, 올 핏
해링턴 재킷, 스트레이트 핏 데님 팬츠, 브로그
디테일 레더 부츠 모두 버버리.
(여자) 리버시블 핏 데님 재킷, 올 핏
해링턴 재킷, 스트레이트 핏 데님 팬츠,
블랙 스트라이프 핏 데님 팬츠,
리버시블 레더 부츠 모두 버버리.



(여자) 사이드 슬릿 디자인의 코튼 캐주얼 키 코트, 코튼 소재의 반타지 체크 셔츠, 레더 슬릿 스카트, 브라운 스틸레토 힐, 텐 색상의 레더 장갑, 양면 컬러의 미디엄 사이즈 벨트 백 모두 **버버리**, (남자) 인공에 탈착 가능한 패딩 베스트를 더한 체크 카 코트, 코튼 슬림 핏 팬츠, 레더 브로그 슈즈 모두 **버버리**.



(남자) 코듀로이 칼라 디테일이 돋보이는 플러트 재킷, 울스퍼드 셔츠, 카펫 텍스처의 캐주얼 니트, 코튼 팬츠, 링크 장식의 가죽 로퍼 모두 **버버리**, (여자) 카펫 텍스처 플러트 재킷, 코튼 소재의 말린 줄리 셔츠, 코튼 잠업 스카트, 실크 자카드 소재의 스카치 스카치, 다-링 디테일의 레더 스틸레토 힐 모두 **버버리**, 문의 02-3485-6000

헤어 이일중
메이킹 김도현
모발 다나엘 오, 티아나 톨스토이
스타일리스트 재원석

High profile

하이패션의 진수를 경험하고 싶다면 오프 꾸뛰르(Haute Couture)의 세계에 입문하는 것은 필수다. 장인의 손끝에서 피어난 이 아름다운 작품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경을 선사한다. 지난 9월 홍콩 리츠 칼튼 호텔에서 개최된 샤넬 2018~19 F/W 오프 꾸뛰르 컬렉션 프레젠테이션 현장.



“꾸뛰르는 파리지”라는 칼 라가펠트의 말로 시작된 이번 컬렉션 쇼에서는 애사기들과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산실인 파리에 대한 자적인 찬사가 이어졌다. 실제로 파리에서 열린 오프 꾸뛰르 쇼에는 센강변을 배경으로 한 무대에서 부키니스트들이 운영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린 사점을 연출했다. 모델들은 모두 파리지엔으로 변신했고, 폴딩 커프스 부티와 로카펠리 스타일의 앞마리, 핀 테일 헤어스타일로 경쾌한 느낌을 자아냈다. 홍콩 프레젠테이션 현장에서 들어서자 의상에 사용된 컬러들이 파리에서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게 한다. 아연 자롱의 연화색, 아스펠트 거리의 진화색, 블랙과 짙은 네이비, 진물결이 일렁이는 센강에 비친 달빛의 골드와 실버 컬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파리 쇼에서와 동일한 헤어스타일을 한 모델들의 위경을 볼 수 있었는데, 가까이에서 접한 오프 꾸뛰르 의상은 그 무엇보다 소재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트위드와 코트 클래식 혹은 플럼드, 플란넬, 벨벳, 크레이프, 레이스, 테파티, 라지미르, 시폰 소재는 촉감과 시각적인 완성도에서 황홀경을 자아냈다. 코블 스타처럼 나란히 줄지어 선 크리스탈 자수 장식과 폰 데 지르(Pont des Arts)의 저물쇠를 연상시키는 금 자수 장식을 가미한 그물 모양 실 소재는 오프 꾸뛰르를 위해 공방을 운영하는 샤넬이기에 가능한 디테일이다. 파리의 오랜 역사와 노하우, 패션에 대한 놀라운 집념이 완성한 작품인 것. 이 옷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패션과 문화의 도시, 풍부한 역사적 유산을 향한 샤넬의 순수한 열정을 이해하게 된다. 가장 새로운 디테일을 꼽는다면 단연 지퍼다. 브레이딩 장식을 더한 지퍼를 소매 좁은 재킷과 스커트의 옆선을 따라 넣어주는가 하면, 재킷과 스커트의 전체 프레임을 따라 적용해 보다 세련된 느낌을 선사한다. 캐주얼한 소재로 만든 지퍼지만 옷의 실루엣을 더 정교하게 고정해주는 효과가 있어 매우 우아한 룩을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브닝 의상은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이 창의적이고 아름다웠다. 특히 슬더 부분을 스텔릿 처리하고 바스트 부분에 풍부한 장식을 넣은 아름다운 디테일, 가벼운 느낌의 시폰과 털 소재 스웨터는 하늘거리는 시스 드레스들과 함께 여성미를 선보이고, 어두운 컬러의 시폰 장식으로 완성한 볼레로 의상은 센강에 비치는 불빛처럼 반짝이는 듯 느껴진다. 14m에 달하는 풍부한 패브릭을 활용한 그레이 시폰으로 된 풍성한 스타일의 스커트는 웨어러블하면서도 오프 꾸뛰르적인 매력을 동시에 선사하는 아이템이다. 또 하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마치 솜털처럼 가벼운 일루미늄 소재를 대안한 룩이다. 파리와 샤넬, 그 특별한 관계를 보여준 이번 컬렉션은 파리에서 탄생한 샤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패션 히스토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에디터 배미진(홍콩 현지 취재)



CHANEL HIGH JEWELRY : COROMANDEL

샤넬 하이 주얼리 신의 새 국면이 시작되었다. 다양한 컬러와 새로운 유색석이 전면에 등장했다. 홍콩 오프 꾸뛰르 프레젠테이션 현장에서 함께 어우러진 샤넬 하이 코로만델 컬렉션은 샤넬의 주얼리에 대한 비전을 엿보게 한다.

샤넬 여사의 파리 아파트에 놓인 코로만델 병풍. 이 오브제는 샤넬의 패션부터 주얼리 워치까지 다양한 컬렉션에 영감을 받은 원천이 되었다. 이번 하이 주얼리 컬렉션 역시 코로만델 병풍에서 영감을 받은 화려한 주얼리에 눈을 사로잡았다. 전사정을 신비롭게 연출한 실차물들 사이에서 주얼리는 마치 산 골짜기에 숨어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듯한 즐거움을 주었다. 총 59점으로 구성된 코로만델 컬렉션은 샤넬의 시그니처이자 가브리엘 샤넬이 가장 사랑한 카멜리아를 모티브로 한 꽃(flora), 코로만델 세공에 등장하는 '동물(tauna)', 크리스탈과 보석에 대한 샤넬의 애정을 상징하는 '광물(mineral)' 등 세 가지 테마로 선보였다. 코로만델의 전통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꽃' 테

마는 병풍으로 표현한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핑크 사파이어 꽃잎과 그린 투르말린 나뭇잎을 형상화했으며, '동물' 테마의 중심은 병풍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날아오르는 듯한 새의 모습을 통해 역동적이면서도 유려적인 기쁨과 에너지를 발산한다. 마지막으로 '광물' 테마에서는 코로만델 풍경을 연상시키는 중국 항저우 시후 호수의 신비로운 모습을 하이 주얼리에 담았다. 눈부시게 빛나며 매 순간 파인 주얼리 광명의 창의성을 선보이고 가브리엘 샤넬의 세계관을 투영하는 이번 주얼리 전시는 샤넬이 주얼리에 대해 얼마나 깊은 이해와 열정을 지니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인상적인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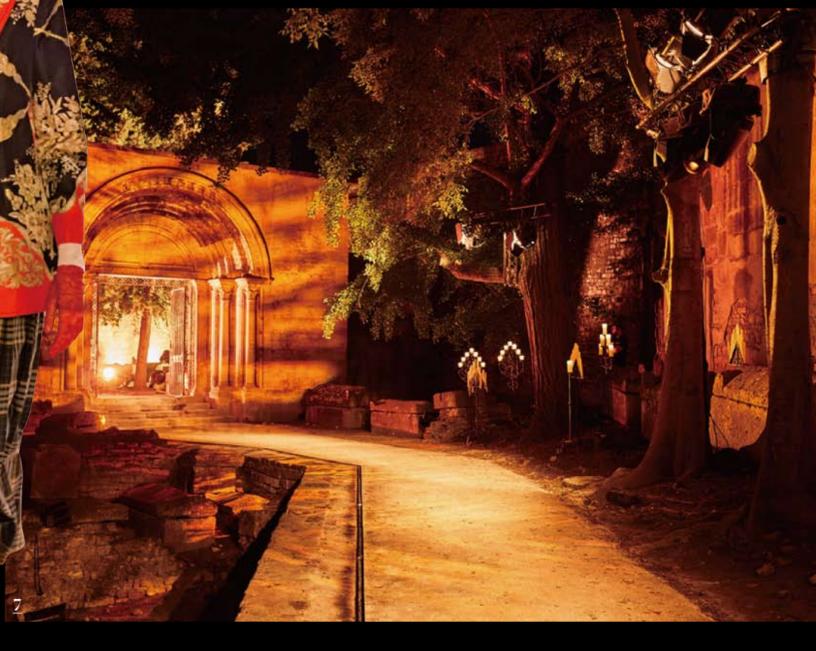


구찌, 남프랑스 아를에서 2019 크루즈 컬렉션을 공개하다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Gucci)가 지난 5월 30일 남프랑스 아를(Arles)에서 2019 크루즈 컬렉션을 공개했다.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Alessandro Michele)는 이번 크루즈 쇼를 위한 장소로 남프랑스 아를의 알리스캉(Alyscamps)을 선정했다. 알리스캉은 4세기부터 유명인들의 마지막 안식처로 사용된 고대 로마시대의 공동묘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명소. 남프랑스 아를은 고후가 사랑한 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다. 따뜻한 태양과 고후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아가 자자하고 호젓한 풍경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구찌를 위해 선택한 장소는 바로 고스한 분위기의 알리스캉이다. 알레산드로 미켈레는 "알리스캉은 고대 로마시대의 공동묘지이지만, 다른 의미에서 단순히 공동묘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장소는 공동묘지인 동시에 1700년대에는 신학교가 되었으며, 두 가지 의미가 결합된, 공동묘지인 동시에 공동묘지가 아닌 곳입니다. 저는 이처럼 특정한 무언가인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은 것들을 좋아합니다"라고 말했다. 아를이 지난 히스토리카까지 구찌의 콘셉트에 녹여내는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영민함을 새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알리스캉을 처음 방문하는 이들이 느끼는 압도적인 분위기, 역사적인 고대의 유적이 지난 카리스미와 남프랑스에서 만나는 이국적인 로마인들의 흔적은 잠시 사공간을 잊게 하는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 공간에서 펼쳐진 구찌 크루즈 쇼의 퍼레이드는 알레산드로 미켈레 특유의 꿈과 현실,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초현실적인 감각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쇼가 끝남과 동시에 그의 록들은 전 세계 동시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입고 싶어 하는 대표작인 트레드가 된다. 가장 함성적인 초현실주의, 구찌 특유의 풀리지 않는 신비라거나 할까? 쇼는 알리스캉의 아를로 뒤덮인 고대 무덤들이 자아내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배경으로 새로운 고딕 스타일의 의상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작됐다. 장중한 사운드트랙이 울려 퍼지면서 특별하게 연출된 연가(와 수백 개의 촛불로 장식된 런웨이, 화려한 자수가 돋보이는 벨벳 드레스와 케이프를 착용한 부케를 든 미인들부터 구찌의 상징이 된 타이거 프린트의 스카니 팬츠와 네온 컬러 벨트 백을 매치한 록 스타로 변신한 모델들까지, 고대 묘지에서 기원한 다양한 영감의 원천과 하우스의 코드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런웨이를 수놓았다. 이번 2019 크루즈 컬렉션에서 공개된 제품으로는, 자기 꼬리를 삼킨 뱀을 형상화한 우로보로스(Uroboros)가 프린트된 리본 핸드백, 고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사람의 몸에 염소의 뿔과 다리를 지닌 파우누스 프린트로 장식한 핸드백, 샤토 마몽(Château Marmont) 호텔의 세탁실 기둥에서 영감을 받은 숄더백, 더블 G 장식의 오스트라치 소재 핸드백, 스타디 디테일의 뉴 셰이프 핸드백 등이 있다. 인상적인 깃털 장식 패시너티어, 셀 스타일 귀고리와 목걸이를 종교 의식에 사용되는 제의 스타일의 자수를 수놓은 코트에 매치해 예상치 못한 조합을 선보였다. 한편, 이날 크루즈 쇼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그룹 엑소 멤버 카이이는 빈티지 체코 재킷과 팬츠, 스트라이프 셔츠, 니트를 착용했으며, 뉴욕 양키스 트레이드 마크 디테일의 모카신과 크리스털 장식의 헤드 피스로 구찌 2018 F/W 룩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이외에도 쇼가 끝난 후 멋진 공연을 선보인 전설적인 팝 가수 엘튼 존(Elton John)과 유명 할리우드 차세대 스타들이 대거 참석했다.

roman rhapsody in Arles

매번 선보이는 컬렉션마다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구찌의 2019 크루즈 쇼, 자유분방한 광시곡을 감상한 듯한 2019 크루즈 쇼 역시 구찌다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강렬하고도 특별한 이벤트였다.



1, 4 클래식함과 보헤미안적인 요소가 믹스된 패턴 록, 오버사이즈 모자도 포인트다. 2, 3 구찌의 시그니처 타이거 프린트와 과장된 디테일, 그리고 화려한 프린트가 돋보이는 록들. 5, 6, 8, 19 남성화와 여성화의 경계가 점점 더 없어지는 추세. 레이어링과 화려한 액세서리에 주목할 것. 7, 13 음산하고 웅장한 고스풍의 개성있는 세트장을 연상시킨 소장, 볼과 연가기 가득한 초현실적인 무대였다. 9 1970년대 록 스타를 떠올리게 하는 록. 10-12 구찌 하우스의 로고와 아구팀의 로고 프린트가 눈길을 끄는 액세서리들. 14 구찌의 전설들을 아꼈고 있는 알리스캉으로 미켈레의 파노라마 모습. 15 한류의 인기로 실감케 했던 엑소의 카이. 구찌 룩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16-18 화려한 빈티지 무드와 구찌의 로고를 살린 뉴 액세서리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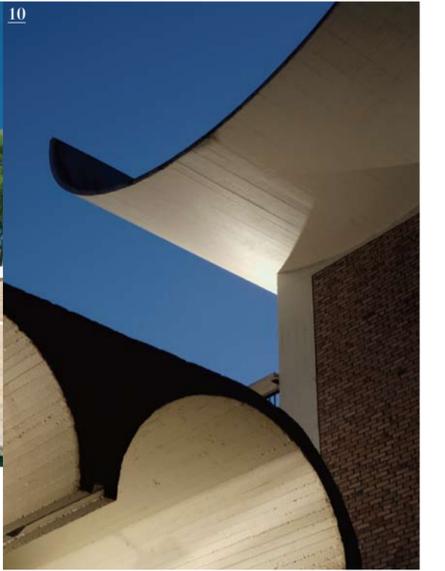
unexpected New Looks

2019 루이 비통 크루즈 컬렉션은 신선함과 기발함으로 가득했다. 의상은 언밸런스하면서도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고, 액세서리는 재치와 위트로 즐거움을 주었다. 장소는? 아티스틱하고 간결한 고급스러움으로 들어선 모든 이를 매료시킨 생 폴 드 방스의 마그 재단 미술관이었다. 역시 루이 비통이다.

루이 비통의 2019 크루즈 쇼를 보기 위해 모여든 전 세계의 미디어와 패션 팬들, 그리고 셀러브리티를 이끈 곳은 남프랑스의 마그 재단 미술관(The Marguerite and Aimé Maeght Foundation)이다.

"저는 25년 전 마그 재단 미술관을 처음 방문한 이후로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들르는 편입니다. 이곳은 한 가문의 아름다운 역사, 모든 예술가들의 친구이자 후원자가 되어 이들과 함께 예술적 대화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낸 열정 넘치는 갤러리스트 부부의 특별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작품들 속에서 예술적 흐름과 공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로 자극히 지적하면서 아름다운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유한 정취가 살아 숨 쉬는 장소로, 설치 작품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 니콜라 제스카에르(Nicolas Ghesbrière), 루이 비통 여성 컬렉션 아티스트 마티에르 가르데트 앙트(Colline des Gardettes)에 자라난 재단 미술관에는 마그 가문의 장대한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도시를 떠난 이곳을 찾은 화가, 조각가, 아티스트가 그동안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공동체를 형성하던 당대 분위기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 이번 컬렉션은 벨기에 아티스트 피에르 알레신스키(Pierre Alechinsky)가 맡았듯이 꿈을 현실로 만든 창립자 에메 마그(Aimé Maeght)의 빛나는 독창성을 드러냈다. 자연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는 런웨이이자 갤러리로 향하는 길은 항복 그 자체였으며, 곳곳에 놓인 예술 작품들은 니콜라 제스카에르가 선보인 새로운 크루즈 룩에 의외의 신선함을 더해 주었다. 마치 조각 작품에서 느껴지는 볼륨감과 추상적인 느낌을 루이 비통의 크루즈 룩에 불어넣어준 듯했다. 기하학적이고 직선적인 실루엣의 상의, 과장된 어깨와 퍼프 소매, 파격적인 커팅을 다한 오버사이즈 아이템들은 혼돈 속에서 균형을 이루며 아주 신성한 룩을 창조했다. 반티지 무드의 프린트, 레이스 트림, 실크와 깃털로 만든 쇼츠 등은 대담하지만 사랑스러운 느낌이 돋보였다. 우리가 옷에서 기대하는 가벼움과 그 옷 안에서 움직임, 그 상호 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한 움직임은 조각상. 기존에 루이 비통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미래적 이가나 해비한 느낌은 찾아보기 어려운 기발함의 파레이드. 루이 비통에 안착한 니콜라 제스카에르의 자신감과 안정감을 엿볼 수 있는 쇼였다.

한편 루이 비통은 2019 크루즈 컬렉션을 위해 그레이스 코딩턴(Grace Coddington)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는데, 작가지 알라스트라이트 김 패선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는 패션계의 아이콘 중 한 명인 그레이스 코딩턴은 동물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그녀 특유의 감성이 돋보이는 매력적인 고양이 스키치로 잘 알려져 있다. 코딩턴은 루이 비통을 위해 상상 속 동물을 재현한 액세서리 라인업을 선보였다. 코딩턴은 "니콜라와 그의 루이 비통 팀과 함께 한 작업은 매우 신나는 경험이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동물을 이끄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는데, 니콜라와 내가 패션 외의 토픽으로 서로 깊이 교감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특별한 캡슐 컬렉션은 2018년 10월 매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1854년 이래 항상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며 혁신과 스타일을 결합한 고유한 디자인을 전 세계에 소개해온 루이 비통 매중, 위아하고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여행 가방, 핸드백, 액세서리를 통해 진정한 여행 예술(art of travel)을 구현해낸 설립자 루이 비통의 정신을 오늘날까지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루이 비통의 역사는 대담함의 연속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탄생한 제품들은 모두 루이 비통의 수준 높은 장인 정신을 반영한다. 자세한 정보는 www.louisvuitton.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1 진폭 줄인 허벅이 오히려 의외의 로맨틱함을 느끼게 한 마그 재단 미술관 2019 루이 비통 크루즈 쇼 현장. 자연과 조각 작품들이 어우러진 런웨이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2 대담한 7톤이 돋보이는 의상과 니콜라 제스카에르의 조화, 의외의 감성과 볼륨이 돋보이는 컬렉션이었다. 3 북 고공의 사랑스러운 걸리시 룩. 매력적인 니콜라 스키치 부츠는 컬렉션 중 가장 돋보였던 아이템 중 하나. 4 짙은 상의와 풍성한 하의의 조화로 온 매치. 5 이번 시즌 스페셜 컬라보레이션으로 선보인, 그레이스 코딩턴의 스키치를 담은 유폴 남자는 백. 6 배놓을 수 없는 메가 트렌드, 로고 액세서리. 7 기장 눈길을 끌었던 루이 비통의 새로운 하이톱 스키치. 8 언제나 매력적인 니콜라의 뮤즈들, 제니퍼 코넬리, 레이 세이두, 엘마 스톤. 9, 10 조용한 숲속에 자리한 또 다른 세상, 마그 재단 미술관. 11 언제나 기대감을 품게 만드는 루이 비통의 신적 가방. 12 내년에도 스키치의 열풍은 신지 않을 듯. 아름다워면서 중성적인 스키치가 여전히 눈길을 끌었다. 13-15 간결하면서도 강렬했던 크루즈 룩. 16 매쇼미다 초대되는, 뮤즈를 넘어 니콜라의 영감이 된 배우다.



greatest Touch

2002년 마다가스카르의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와 함께 시작한 샤넬 뷰티의 정수, 수블리마지의 여정은 올해, 궁극의 에센스로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뤘다. 식물계의 보석, 솔리다고를 담은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이 안티에이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알프스에서 찾은 안티에이징의 새로운 비전, 솔리다고
 확실한 효과, 이를 뒷받침하는 믿을 만한 성분과 탄탄한 기술력, 나아가 감각적인 뷰티 리추얼까지, 지금 최상의 뷰티 케어를 경험하고 싶다면 샤넬 뷰티의 정수이자 샤넬의 모든 것을 담은 수블리마지 라인에 주목해야 한다. 1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수블리마지가 지닌 뛰어난 가치를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끝없는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은 샤넬 연구소는 지속적인 개발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하이엔드 스킨케어 라인을 구축했다. 이런 샤넬 연구소의 노력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확실한 제품력과 그간 쌓아온 두터운 신뢰가 여실히 증명해준다. 그만큼 이들의 정수를 담은 수블리마지 라인은 여자들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이고도 확실한 효과의 뷰티 케어를 선사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샤넬은 2006년 최초의 자연 활성 성분인 플라니폴리아 PFA 개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블리마지 에센셜 리제네레이팅 세럼과 크림을 비롯해 수블리마지 라크렘, 라크렘 아이, 파운데이션 등의 라인업을 구성했고, 작년에 이러한 고귀한 바닐라 성분과 기술력을 집약한 수블리마지 렉스트레와 프리미엄 미스트를 출시하면서 수블리마지 컬렉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샤넬은 언제나 그랬듯 이에 안주하지 않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고, 최상의 원료를 찾기 위한 노력과 여정은 비로소 올해, 식물계의 보석이라 불리는 솔리다고(Solidago)를 발견하면서 정점에 달했다. 프랑스 남부 지역 전문가 및 협회와 협업해 연구를 시작한 샤넬 연구소는 약 8년 동안 마다가스카르부터 프랑스 남부 알프스 지방에 이르는 지역에서 서식하는 약 5백 개 이상의 야생 식물을 연구해왔고, 그중 60개 이상의 유효한 성분을 지닌 식물 추출물과 분자구조를 발견했다. 나아가 수블리마지만을 위한 오픈-스키 연구소를 설립해 가장 건강하고 유망한 식물을 선별해 재배하는 등 다른 브랜드에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연구를 이어나갔다. 그 결과 마침내 피부의 근본적인 힘을 강화하는 고귀한 성분인 솔리다고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솔리다고 꽃은 라틴어로 '강화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식물로, 태양의 황금빛을 머금은 국화과의 노란 꽃이다. 알프스 지방의 건조한 고원에서 최고 해발고도 2,800m의 거친 환경 조건을 견디며 서식하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신비로운 식물이다. 샤넬 연구소는 이 솔리다고가 노화에 대항하는 젊은 단백질인 SNEV(세포 활력의 전도체로 젊은 피부에 필수적인 성분)의 발현을 촉진하는 놀라운 효능을 갖추었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고, 이를 풍부하게 함유한 궁극의 에센스,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을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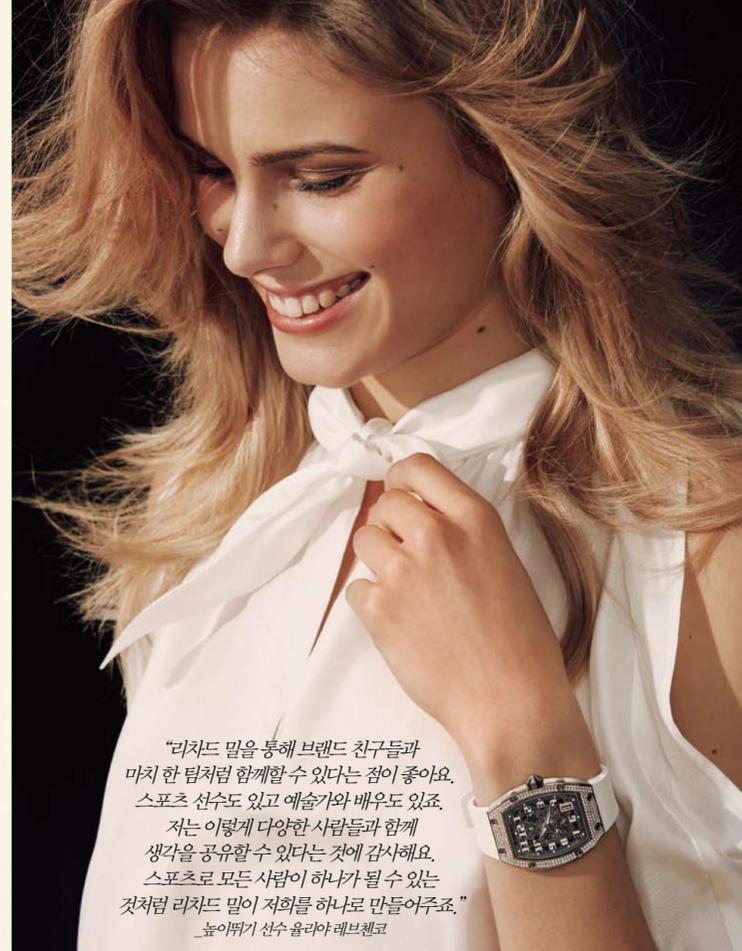
피부의 궁극적인 힘을 강화하는 필수 에센스
 이처럼 샤넬이 독점적으로 발견한 솔리다고 추출물은 세포 활력을 향상시키고 피부 각 층의 밀도를 54%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예방과 교정 효과를 모두 지닌 활성 성분으로 표피 세포, 케라티노사이트뿐만 아니라 피부 젊음을 관장하는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어 마치 재생 버튼을 누른 듯 노화된 세포가 새롭게 되살아난다. 이런 놀라운 성분에 수블리마지의 DNA라 할 수 있는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더해진 만큼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의 효과는 당연히 그 기대 이상이다. 31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피부 변화를 테스트한 결과, 피부의 탄력과 조밀함이 각 32%, 30% 증가했고, 주름은 23% 완화되어 피부 표면이 매끄럽게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뛰어난 보습력을 갖춘 히알루론산과 시어버터를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에 부드러운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신축하면서도 영양감이 풍부한 리치한 마무리감의 텍스처는 피부에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고급 스킨케어 받은 듯 심신을 편안하게 한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피부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얻고 싶다면,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과 함께 렉스트레 드 크림과 렉스트레를 함께 사용해볼 것. "얼굴은 내면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이다"라는 가브리엘 샤넬의 말처럼 고급스러운 윤기와 편안함이 묻어나는 얼굴로 가꿀 수 있을 테니, 지금이야말로 수블리마지 라인의 진가를 경험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40ml 61만3천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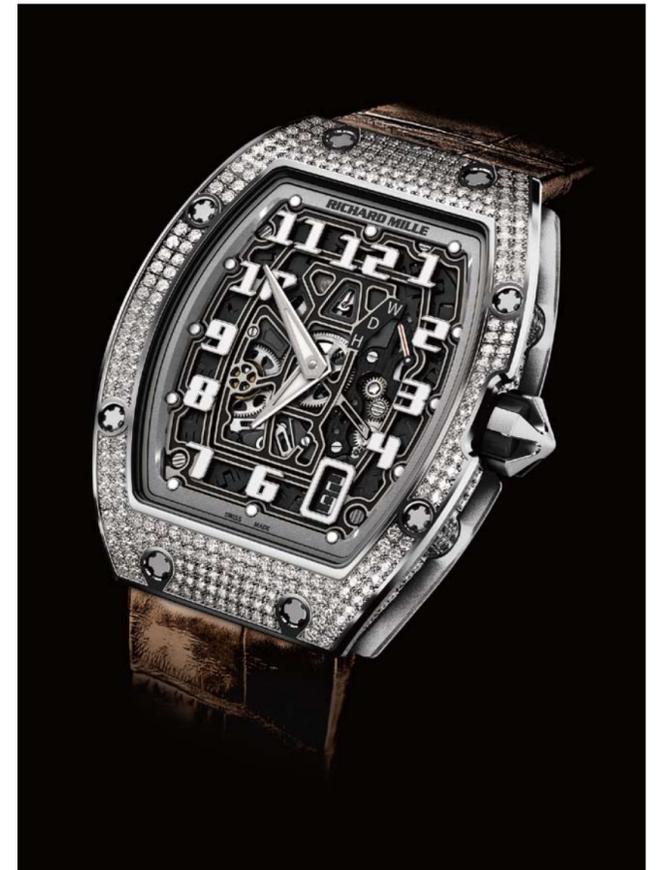
식물계의 보석 솔리다고.

● sponsored by CHANEL

● sponsored by RICHARD MILLE



"리차드 밀을 통해 브랜드 친구들과 마치 한 팀처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스포츠 선수도 있고 예술가와 배우도 있고. 저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스포츠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리차드 밀이 저희를 하나로 만들어주죠."
 - 높이뛰기 선수 율리아 레브첸코



refined Luxe

뛰어난 기술과 정교한 아름다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유니크한 가치를 지닌 리차드 밀의 새로운 워치 컬렉션 RM 67-01 오토매틱 울트라 플랫과 이를 착용한 2명의 여성 앰배서더.



RM 67-01 White Gold Half set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바인, 시, 분, 날짜와 기능 인디케이터를 적용한 스텝레드 오토매틱 와인딩 무브먼트인 CFMA6 칼리버를 장착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 가공한 5등급 티타늄을 사용했다. 오직 터너 형태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데 순수 가공에만 6시간 이상 소요될 정도로 정교한 작업으로 완성했다. 문의 02-512-1311 에디터 배미진



"리차드 밀 패밀리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요. 리차드 밀 브랜드의 예술적 감각과 혁신적 디자인에 늘 감탄해왔기 때문이죠. 제가 꿈꾸는 디자인 모델은 리차드 밀의 비전을 구체화한 아름답고 독창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의 타임피스예요. 정말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배우 마요코미

